

채소값 폭등에 고깃집서 쌈채소 사라졌다

집중호우에 생육 부진...상추·깻잎·풋고추 등 가격 '껍충'

1주 새 적상추 98.3%·오이 200%...깻잎 전달비 80.2% ↑
쪽염·태풍 남아 추석 명절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부담 늘어

“요즘 채소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지난 22일 오후 방문한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고깃집. 일행들과 함께 삼겹살을 주문한 뒤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곧 이어 각종 반찬들이 나왔는데, 쌈채소가 담긴 그릇에는 잎쌈배추 8-9장이 전부였다.
고깃집 사장에게 “늘 주던 상추와 풋고추를 왜 안 주느냐”고 묻자 “요즘 상추 가격이 너무 올라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 “엔만해서는 아끼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추와 깻잎을 비롯해 채소값이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너무 많이 올라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장사하는 입장에서 난처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광주 도심 곳곳 음식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21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단골 삼겹살집을 방문했다는 오준균(32)씨도 평소 기본 상차림으로 나오던 쌈채소가 나오지 않자 주인에게 “왜 쌈채소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쌈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요구하는 손님에게만 내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오씨는 “쌈 채소를 달라는 요구에도 주인이 내온 채소 바구니에는 상추 4장, 깻잎 2장, 청양고추 1개가 전부였다”며 “주인이 미안하다면서 더 주는 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채소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 리필을 두고 식당 사장들과 손님들이 눈치를 보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식당에서 찾았다가 상추, 청양고추 등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데다, 사장들 역시 손님들의 요구를 마냥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집중호우로 인해 농지 3만5068.4ha가 침수, 낙과 등 피해를 입었고 농업시설 59.0ha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비로 인해 농경지 피해는 물론, 농산 물도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없게 되자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날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지난 21일 기준 적상추(상품) 도매가격은 4kg에 8만3520원으로 일주일 만에 98.3%나 올랐다.
한 달 전 1만8700원에 비해 무려 346.6% 급등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4만2496원)보다도 96.5% 오르는 등 두 배 가까이 비싸졌다.
청상추(상품) 도매가격도 4kg에 9만360원으로 일주일 만에 144.7% 올랐다. 한 달 전(1만9052원)보다 374.3%, 1년 전(4만5900원)보다 96.9% 급등한 것이다.
깻잎(상품) 도매가격도 한 달 전보다 80.2% 오른 2kg당 3만4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도 최근 강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오이(다다기 계통·상품) 도매가격은 100개에 14만원에 웃돌면서 일주일 새 200% 상당 올랐고, 애호박(상품) 역시 20개에 3만6420원으로 일주일 만에 143.8% 올랐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집중호우가 끝난 뒤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태풍 북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쏟아진 ‘극한 호우’로 채소 가격이 급등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비가 그친 뒤엔 폭염과 태풍이 기다리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물가가 크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21일 중복 맞이 삼계탕 나눔봉사에 참여한 임택(왼쪽부터) 광주시 동구청장과 고병일 광주은행장, 주리에 광주동구노인복지관 관장.

광주은행, 중복 맞이 노인시설서 배식 봉사

임택 동구청장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실버피아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중복을 맞아 삼계탕 400인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30여명이 함께했으며,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이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은행은 또 떡과 계절과일, 부채 등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배식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나눔 봉사의 기업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1일, 순천시 조곡무로급식소를 찾아 전복삼계탕을 나눴다.
광주은행은 매년 여름철 광주와 전남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어르신 전용점포인 빛고을건강타운·오치동·학동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 고객을 배려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 집중 호우 구호 성금 3억 기부

효성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효성과 주요 사업 회사인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이 그룹 차원에서 함께 마련했다.
효성의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올해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 20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20년 8월 집중호우 등 국가 재난 시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역소리 나는 삼성 TV 삼성전자 모델이 출고가 1억3000만원의 89형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중국에서 89형 마이크로 LED를 선보인 이후 국내 시장에도 출시, 초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가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이 목포아동원 원생들과 EV9 시승행사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 제공>

기아 광주전남본부, 목포아동원 찾아 EV9 시승 행사

후원금 전달도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여준우)는 지난 21일 목포 소재 양육시설 목포아동원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한 뒤 기아가 최근 출시한 ‘더 기아(The Kia) EV9’를 타고 시승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목포아동원 원생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6월 출시한 EV9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후원금 260만원을 전달한 뒤 목포아동원 원생들과 관계자 등 25명을 태우고 목포 일대를 주회했다.
기아 관계자는 “EV9를 타고 함께한 나들이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이자 소중한 경험이 됐으면 한다”며 “지난 6월 출시한 EV9에 지역 고객들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아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총, 21일 '금요조찬포럼' 코미디언 이홍렬 초청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우원)는 지난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이홍렬 코미디언을 초청, ‘즐거움 인생’을 주제로 1613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가는 행복이 있다”며 “하고 싶었던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실행해보라”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은 오는 28일 차경진 한양대 교수를 초청해 ‘데이터로 고객경험을 혁신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1614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한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 CEO와 지역민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의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은 국내 대표 민간포럼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벤처포럼 열어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20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포럼에는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이 강사로 나서 챗 GPT, 오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사물 이동체 등 미래산업 패러다임 변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우주 인디케이 대표가 벤처기업 성공스토리를 공유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정 대표는 CES 2023 수상경험과 인공지능 융합시대 선도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사용자 상황과 감정을 분석하는 인공지능과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술개발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며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에서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감사협회장 취임

전영상(사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제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초 개최된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선거인 총 수 106표 가운데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89표를 얻어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감사인들이 감사역량을 발전적으로 발휘하고 차원 높은 감사 활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세계적인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운영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7월 기준 112개 공공기관이 가입돼있는 단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7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8	17	30	40	43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3,570,901,018			7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2,510,727			98
3	5개 숫자일치	1,287,806			3,235
4	4개 숫자일치	50,000			149,808
5	3개 숫자일치	5,000			2,428,987